

육아정책 소식

교육부 2015년도 예산안 55조 1,322억 원 편성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18일(목) 보도자료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54조 2,481억 원에서 8,841억 원 증액한 55조 1,322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고등교육 10조 5,341억 원, 평생·직업교육 5,633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39조 7,142억 원을 편성하였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1,370억 원 대비 1조 4,228억 원 감액한(△3.5%) 39조 7,142억 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 5,206억 원 포함)을 편성하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19일(금) 보도자료에서 어린이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육시설 내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14. 5. 1.~6. 30.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주요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은 1차 전수조사 대비 5.4% 증가하여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의 55.5%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시설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율은 1차 전수조사 대비하여 각각 12.3%, 8.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집으로 제작하여 관계부처 및 일선 관리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의 활용효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월 19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음을 밝혔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을 중장기 비전으로 하여, ①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보육, ②보육품질 제고, ③부모안심 보육, ④소통하는 보육의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다.

〈4대 전략과 세부 계획〉

①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보육

- 장기적으로 아동 인지발달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원하는 부모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 영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15) 등을 추진

② 보육품질 제고

-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전환(15)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육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품질평가와 보육정책을 긴밀히 연계
- 중장기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최대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
- 공공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동일한 인건비 지원방식을 도입(15년 시범사업 추진)하고, 평가인증 지표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를 반영(14.10)하는 등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 수급전망 등에 기반한 중장기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보육교사 역량향상 방안을 마련

③ 부모안심 보육

-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기관(안전공제회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학대·화재·차량·건강 등 관련 위험요소 감소
- 보육통합시스템과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자체의 효과적인 행정지원으로 안심보육 기반 강화

④ 소통하는 보육

- 보육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보육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부모-어린이집-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으로 전환
- 원장·교사·지자체·부모 등 정책수요자별 간담회 개최, 젊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온라인 참여공간 확대 등 소통 채널 확대
- 중장기적으로 중앙은 정책방향 설정과 성과관리 역할 강화, 지방은 지역 맞춤형 보육정책 설계로 역할 재정립

이번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논의된 「아이행복플랜」의 정책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전문가, 현장 어린이집,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아이행복플랜」을 마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아이좋아 둘이좋아 TV 공익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1일(수) 보도자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을 TV 채널 등과 함께 올해 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만혼과 고령 산모가 많아지며 둘째 이상 출생아수가 '83년 이후 절반가량 줄어들고 함께 출산율이 1.19명에 이른 초저출산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두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은 아이가 있어 즐겁고, 둘이라서 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서로 돕고, 함께 뛰어 노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를 통해 배우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기획재정부(부총리 최경환)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데 대하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10월 15일(수) 합동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을 제 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임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내년도 일시적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교육부가 인증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개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이하 인실련)은 10월 30일(목) 2014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공모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제3회 인증 공모전에는 총 115편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편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보건복지부, 아이좋아 둘이좋아 TV 공익 캠페인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1일(수) 보도자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을 TV 채널 등과 함께 올해 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만혼과 고령 산모가 많아지며 둘째 이상 출생아수가 '83년 이후 절반가량 줄어들고 함께 출산율이 1.19명에 이른 초저출산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두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은 아이가 있어 즐겁고, 둘이라서 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서로 돕고, 함께 뛰어 노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를 통해 배우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도 누리과정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

기획재정부(부총리 최경환)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데 대하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10월 15일(수) 합동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을 제 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임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내년도 일시적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교육부가 인증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개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이하 인실련)은 10월 30일(목) 2014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공모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제3회 인증 공모전에는 총 115편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편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았다. 교육부는 바른 인성 함양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범국민적인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1~2회까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총 43편을 인증하여 학교, 가정, 사회에 실천과 체험 중심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개인, 학교, 지자체, 기업 등 활용을 희망하는 기관 107곳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발달단계별로 인증하고 있으며 이번에 인증된 유아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유아용 프로그램〉

- 경기 하늘빛유치원(원장 이기민, 031-8015-8081)의 「세 남매 똘똘 하늘빛 사랑해요」 프로그램은 학급담임교사가 개별 유아의 가정환경, 출생순위, 형제관계를 고려하여 동아리를 구성하고, 어린이 요가, 국악놀이, 오카리나 연주, 어린이 요리, 흙 놀이, 스트레칭 활동을 순환식으로 운영하여 가족애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인성교육 인증 프로그램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연장평가심사를 거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15편과 1~2회때 인증된 43편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산·보급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이미 활용중인 107곳 이외에 새로운 활용 희망기관을 선정하고,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증 프로그램은 인실련 누리집(www.insungedu.or.kr)에서 누구나 쉽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사이트 운영

국무총리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단장: 국무2차장, 이하 추진단)은 교육부·복지부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www.childinfo.go.kr)’를 구축하고, 11월 17일(월) 9시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을 밝혔다. 유보통합 1단계 과제인 이번 통합은 지난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14. 8. 29.)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정보공시 연계(‘14년) → 공시항목 정비·통합(‘15년) → 시스템 통합(‘16년~) 순으로 계획되어 있다. 통합 정보공시로 학부모들은 기존에 각각의 정보공시 사이트(아이사랑정보공시포털 info.childcare.go.kr, 유치원알리미 e-childschoolinfo.moe).

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핵심 공통정보(영유아, 교직원, 운영시간, 교육·보육비용, 통학차량 등 11개 공통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정보 이용이 용이해지고 기관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9일(수)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11월 18일(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과 컨소시엄을 맺은 카드사 대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KB국민카드 컨소시엄(대표 김덕수), BC-롯데카드 컨소시엄(대표 서준희)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14. 8. 29)에서 논의·확정한 유보통합의 결과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받은 보육료 지원카드(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아이즐거운카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